

2022신년
메시지

고난의 시대에 평안과 희망을 주는 교회

<예레미야 29:10~14>



총회장 **나카에 요이치 목사** (히로시마교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 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렘29:10-14)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재일대한기독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과 희망이 넘쳐 나기를 기도합니다.

작년 11월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 제56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시도에도 도전해봤습니다만, 지금 교회는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위드 코로나를 향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응하여 자신의 새로운 삶으로 여기고 거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당분간은 코로나의 불안을 안은 채 아직 어둠 속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56회 정기총회 회기의 주제로 ‘고난의 시대에 평안과 희망을 주는 교회’라는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본연의 자세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 성구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니라.”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이전부터 예레미야가 말해 왔듯이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 포로 기간은 70년 정도로, 그 후에 예루살렘에 귀환할 수 있다는 것, 그 70년 동안 그 땅에 뿌리박고 살며 그 땅에서 번영하라는 것,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곳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흥미로운 충고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혼혹되지 말라는 것과 자신들의 꿈에도 휘둘리지 말라는 것었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기억과 소원 사이에서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너무 강한 소원이란 거짓 예언자들에게 틈을 주는 법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향하도록 촉구했던 겁니다.

하지만 포로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말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년 내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었으며,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니! 용서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70년은 너무 길었습니다. 유배되어 끌려간 자들은 거기서 죽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70년은 3세대에 걸쳐서 자리를 잡고 살라는 소리였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 70년에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귀국의 길이 끊어진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는지를 추구하며 조상들의 전승을 모아 편집해 나갔습니다. 모세 5경이 최종적으로 편집된 것이 이 포로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배 기간을 통하여, 다윗 왕가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민족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국토를 잃고도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방 후 재일대한기독교회가 걸어온 역사와 포로된 백성들의 역사가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해방의 기쁨 속에서 귀국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어느 사이에 분단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받으며 오래오래 이국땅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재난을 받도록 만들어진 계획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고, 교회가 고난을 겪은 여정도 평화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니라.”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눈앞의 일에만 얹매이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0년, 20년, 아니 70년 이상의 미래를 응시하면서, 앞으로 1년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가며 오래오래 장래와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 나아갑시다.

韓日対照聖書販売



各ページ左に韓国語(改革改版)、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A5版変型・1772ページ

●価格: 3,0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説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 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2022년을 맞이한 각지방회장과 각단체장 포부

관동지방회장 <이명충 목사>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하박국 3 : 17-19)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계속되는 인내의 한 해였으며,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고 고난 속에서도 관동지방회에 속한 교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2022년을 맞이하며 관동지방회에서는 계속해서 서로의 교회 상황을 공유하고 기도하며 서로돕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함께 모이기가 어려워졌지만 다행히 온라인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넓은 지역의 지방회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관동지방회에 속한 교역자가 모두 모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적극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함께 하며 아픔을 공유하고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수도권에 계시는 교역자만이 지방회의 중추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귀중한 교역자들도 지방회의 기능을 함께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목회사역에 지친 교역자가 위로받고 격려받는 세미나 등도 기획하여 다시금 선교의 사명에 힘쓰는 자들이 되며, 관동지방회에서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2022년에도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관동지방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부지방회장 <김명균 목사>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지방회를 지향하며—

중부지방회는 9개의 교회와 3개의 전도소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지방회입니다. 그 중에서 자립하고 있는 교회는 적으며 거의 대부분의 교회와 전도소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며 With 코로나 속에서 생활 해 가야 하는 미래의 비전을 개 교회들이 어떻게 재 정립해 나갈지가 지방회로서도 큰 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목(無牧) 상태로 오래동안 방치되어 노후화된 요카이치(四日市) 교회의 건물에 대해서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어느 쪽이든 비용이 들겠지만 건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에 보다 유념하여 임하고자 하는 과제는 아래와 같아요:

크게 세 가지의 일입니다.

- ① 각 교회가 좀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 ② 계속해서, 지방회의 재정을 재 검토해 다시 세우는 일에 협력과 이해를 얻는 일
 - ③ 온라인 등에 의한 지방회와 교회, 또 교우들 상호 교류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네트워크의 확대를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는 일
- 지금까지도 중부 지방회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왔었습니다만, 새로운 생활 양식이 요구되고 그것이 조금씩 정착되어 가고 있는 지금,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함께 나누는 따뜻한 중부지방회를 목표로 함께 달려 가고자 합니다.

관서지방회장 <허백기 목사>



2년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사태 가운데, 작년은 감염 확대에 우왕좌왕한 재작년과는 달리, 각 교회가 「모임 금기」를 극복하려는 대응을 조금씩 늘린 한 해이었습니다. 각 개교회에서의 감염 대책이나 예배중계 방법 등이 숙달하는 한편, 각종 회의를 ZOOM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활발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최저한의 운영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재앙에 놓여진 교회가 신념과 지혜로 견디며 극복할 길을 발견한 것은 정말로 귀중한 체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계 3:16) 우리의 믿음이 겸종을 받는 기회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이는 일 자체가 금기사항으로 여겨지는 새로운 가치관 가운데 우리는 매일 매일 ‘신앙’과 ‘육신의 생명’을 양팔저울에 달아야 하는 것 같은 엄격한 선택을 강요받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계속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체험에서 거리가 먼 우리가 초대교회의 대선배들, 또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 박해 중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동료들의 경험의 일부를 직접 맛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느끼면서, 이것도 또 주님이 주신 귀중한 기회였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 안에서 발휘되어야 할 지방회의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라는, 대답이 나오기가 힘든 질문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올해의 목표로 삼고, 저는 간사이지방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첫째는 코로나 사태의 향방을 내다보면서 대면 예배와 친교의 회복을 촉진하는 일입니다. 역시 교회의 생명은 <모이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코로나 사태로 악해진 지방회 사역의 위기적 상황을 오히려 계기로 삼아, 공평하고 공정한 질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바른 의회문화나 법에 의한 바른 통치, 젠더 벨런스에 배려에 신경을 써나가고 싶습니다.

셋째는 오랫동안 묵은 과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간사이지방회에서는 특정의 개 교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넘겨져온 속제들이 있는데, 해결에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시작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간사이 지방회 운영에 주님께서 큰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방회장 <양영우 목사>



— 하나되는 지방회를 목표로 —

에배소서4장 4-5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라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서부지방회 13개 교회와 2개 전도소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전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와 교회행사로 고민하고, 여러가지 모색을 해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소수의 지방회입니다. 앞으로 지방회의 행사와 각 교회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라는 것이 가장 첫째 과제입니다. 작년까지 다른 교단이나 다른 지방회와 교류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서부지방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시 5개 교회와 2개 전도소에 무목상태입니다. 많은 신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목회자의 인도를 바랍니다.

전국교회여성연합회장 <이현지 권사>



돌이켜보면 2019년 6월, 여성회 창립 70주년 기념과 정기대회를 은혜 안에서 무사히 마치고 희망의 새로운 한발을 내딛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자숙과 온라인 예배 등 여러 가지 감염 대책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성회는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성경우물가(이도바타)”라는 온라인 강좌를 개최하고 있었기에 비대면이라는 난관에도 잘 대책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온라인에 탁월한 임원들의 협력과 봉사로 인해 작년 후반에는 온라인 체제를 갖출 수 있어 성서 세미나와 연수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100여명이 넘는 참가자로 분단 토의도 활발한 집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6월에 제63회 정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비대면 선거라는 난관과 비상사태를 대응하는 체제와 현장을 구축하기 위해 지금의 체제로 2022년 6월까지 정기대회를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여성회를 아낌없이 협력해 주신 5지방회회장님을 비롯해 임원과 여성회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러운 직장 해고와 정지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주 외국인과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상황에 활동을 자숙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을 모색한 결과 식료품 지원 “모리모리 푸드판트리”를 2020년 10월부터 개시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물질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 지원과 배경에 있는 어머니들, 또 여성들의 케어, 지원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가고자 합니다. 전국여성회의 취지에 동감해 주시고 많은 분들의 원조와 현금, 헌품에 감동과 감사를 표합니다.

금년 6월에는 정기대회가 개최되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됩니다. 새로운 임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의 시대로 원활하게 과감히 이행하며 여성회의 활동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여성회가 되길 바랍니다.

서남지방회장 <김성효 목사>



2020년 3월 27일 福岡교회에서 가진 모임이 대면으로 가진 마지막 임직원회였습니다. 이 날부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확산되었으며, 한 달 후에 가진 정기총회는 서면으로 대처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임직원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초사경회와 수양회, 크리스마스 예배 등의 행사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2021년도의 정기총회도 서면으로 대처하면서 개최했습니다만, 우편을 통해 임원선거를 실시할 수 있었고, 제71회 기 임직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임직원회를 온라인을 개최하면서 느낀 점은 서로 대면하는 가운데 진행된 모든 회의와 행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예배를 대면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병이나 몸이 불편하여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임직원회를 기동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개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남지방회는 야마구치현에서 규슈,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은데다가 10개의 교회와 1개의 전도사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있는 교회는 고립하기 쉽고, 지방회의 교제에서 멀어지기 쉽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온라인을 통한 임직원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통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소식을 나누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베교회(宇部教会)와 오리오교회(折尾教会)가 무목이 된지 오래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먼 곳에서도 리모트를 통해 임시당회장과 함께 제직회를 가지는 등, 온라인을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방 교회는 동포의 수가 적은데다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목회자가 보냄받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회의나 행사를 대면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울지도, 온라인의 장점과 이점을 살려 나가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안고 있는 교회를 지탱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나아가는 서남지방회가 되고자 합니다.

전국청년협의회 대표 <차유오>



새해에는 각 지방회 청년 연합회의 재건에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청년회가 심심풀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교회에서 쓰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청년회 전국협의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청년이 없다, 선배가 없다, 그런 분은 청년회전국협의회로 오십시오.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

이 시대 모두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데 급급합니다. 공부나 일로 인해 주 1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고작이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있다면 타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 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지혜를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교회에서의 봉사입니다.

전국장로회장 <김일환 장로>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지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코로나 사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 하심에 힘입어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젊은 세대에게 믿음의 계승 문제가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더 교류하면서 젊은이들의 문화,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젊은이들이 무엇이든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신뢰관계가 있는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어린이 교육에도 더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아이의 시선으로 알기 쉬운 교재를 만들거나, 한국의 좋은 교재를 찾아 가르

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전문가를 초대하고 교사 교육도 계속해야 합니다.

젊은 교역자를 육성을 위하여 젊은이들 중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교인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하며, 신학생을 과악하여 재정적 또는 생활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고, 새롭게 가입한 선교사의 교육, 교역자 및 장로 연수회를 통하여, 배움과 교제의 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의 지원, 은퇴 교역자의 노후 생활을 위한 지원 등도 재정적으로 계획을 세워 충당할 재원을 마련해 가야 하는데, 교회 현금의 사용처를 모든 교인에게 공유하고 기도하며 합력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약하고, 병들고, 연로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전통과 사명으로 계속해서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는 다양화, 다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제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인정하여 훌륭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은혜로운 복음의 메시지와 사랑의 교제로 무지개보다 아름다운 색의 빛을 세상에 비춥시다.

<제56회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주요 변경 및 설치된 사항>

1. 신학고시위원회 세칙 제8조, 제10조 개정

- 제8조 2. <선교사 가입고시는 1년 2회실시 한다>를 <삭제>
- 제10조의 <전도사 목사 고시는 매년 9월에 실시한다. 단, KCCJ 기관지 복음신문을 통하여 3개월 전에 공고한다.>를 <전도사와 목사 고시, 선교사 가입고시는 매년 3월~4월에 실시한다. 단, KCCJ 기관지 복음신문을 통하여 3개월 전에 공고한다.>로 변경.

2. 총회 규칙 개정

요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만연 방지 조치를 위해 긴급사태 선언이 있었고, 자연 재해 등의 비상사태가 내려질 때에, 헌법에 정해진 정기총회 개최와 상임위원회 개최가 안되는 상태이다.

이러한 비상사태의 경우, 정기총회의 중지 혹은 연기할 수밖에 없는데, 중지 또는 연기할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다. 또한 개최를 해도 총대의 직접 참가가 안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온라인에 의한 비대면 참가, 그리고 이러한 비대면 개최에 있어서 결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칙 개정을 하게 된 것이다.

○제2장 「정기총회」 제2조 「총회」 1. 「정기 (임시) 총회 소집」

- 1) 헌법 제61조에 의해 정기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
단, 총회장은 헌법 제62조가 정하는 정기총회의 성립 안된다고 판단할 때, 혹은 헌법 제61조1항에 의해 정기 총회의 소집이 안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정기총회를 중지 혹은 연기할 수가 있다.

○제2장 「정기총회」 제2조 「총회」 2. 「회의 결의」

- 3) 정기(임시) 총회는, 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온라인 등을 이용(혹은 병행)한 비대면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고, 이 경우 1항의 의사 결의를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제5장 「상임위원회」 제8조 「상임위원회」

- 6 . 상임위원회는, 재해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상 방법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의장은 온라인 등을 이용(혹은 병행) 한 비대면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고 기 경우 결의를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8 . 상임위원회의 직무 권한

- 1) 총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으로서 그 위임을 받은 사항
- 2) 차기 총회 까지의 총회의 권한에 상례의 사항
단, 규칙 제2조, 1항, 1) .에 따라 정기총회가 중지 또는 연기되었을 때도 같지만(임원선거 제외), 처리 사항은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교역자 은퇴 후의 지원 급부금 규칙>, <구제기금위원회 규칙> 제정

제55회 정기총회에서 연금 규칙의 폐지와 연금위원회가 해산되고 새롭게 <구제기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일괄 면제하고 남은 구제 기금 6800万円을 기반으로 하여 연금 설립 이념를 존속하는 <퇴직 교역자 지원 급부금 규칙> 제정과 <구제기금위원회 규정>의 제정이 필요 하며, 장래에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이 규칙은 약간의 가감 등의 보완 후, 2022년4월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실시한다.

讃頌歌委員会より 「子どもさんびか」が 発行されました。

主の祈り・使徒信条・交説文・十戒
集録（いすれも韓国語・日本語）
一冊1,000円
お問い合わせは総会事務局へ
電話 03-3202-5398



豊かな味、豊かな心。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